

# 출하량 감소에 '금값' 된 감자...또 '감자대란' 오나

### 4월 감자 평년보다 27~36% 상승...저장 감자 부족·품질 저하 등 원인 쌀 재배면적 감소에도 공급과잉 예상...쌀 가격 5월까지 현 가격 유지

대표적인 식량 작물이자 우리 밥상에 자주 오르는 감자가 다음달에도 높은 가격대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반면 쌀과 콩 가격은 현재 수준을 유지하거나, 다소 떨어질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하 농경연)에 따르면 올 4월 감자(수미·상품) 도매가격은 20kg에 7만~7만5000원 수준으로 예측됐다. 이는 작년 4월(6만6999원)에 견줘 4~12% 비

싼 것으로, 평년(2018~2022년) 가격인 5만5250원에 비해서도 27~36%나 비싼 수준이다. 이달의 경우 감자 도매가격은 20kg에 7만1199원으로 1년 전보다 27%, 평년보다 34% 올랐다. 여기에 감자 가격이 또다시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물가에도 비상이 걸릴 전망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하 농경연)에 따르면 수확기 이후 쌀 가격은 약보합세에 접어들었다. 전국 산지 평균 가격이 20kg 기준 4만 4797원으로 전년 대비 7.6%, 수

확기 대비 1.4% 하락했다. 정부의 쌀 매입 증가에도 역계절전복(전년 수확기 대비 가격이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해 산지에서 심리적 불안감은 가중된 데다 상대적으로 재고가 많은 업체의 저가 출하 증가가 원인으로 꼽혔다. 연구원은 산지유통업체와 농가 재고량 감사가 가격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수는 있지만, 여전히 산지 수급에 대한 불안감이 존재해 가격 상승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제 값을 받지 못하는 쌀 값으로 인해 올해 쌀 재배면적은 지난해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연구원이 발표한 2023년산 벼 재배의향면적은 71만 1000ha로 전년보다 2.2%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연구원은 예상 쌀 생산량은 368만으로 수확

기 시장 공급량은 지난해와 비슷해 공급과잉 현상을 빚을 것으로 예상했다. 콩 가격은 수확기 이후 하락세다. 지난 3월 국산 콩가격은 kg당 5320원으로 전년보다 8.9% 하락했다. 수입 콩 가격은 중품 기준 kg당 3602원으로 국산 콩 가격 하락과 경기 불황으로 인한 외식업체 판매 부진으로 수요가 감소한 탓이다. 콩 가격은 2분기까지 1kg에 5300원으로 3월과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시장 출하를 목적으로 하는 농가의 재고가 미미하고 산지 업체가 가격 하락을 막기위해 출하량을 조절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저탄소 한우 육성으로 수출 확대·탄소 감축 나선다

### aT, 간담회 개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지난 22일 서울 양재동에서 김도현 전북대학교 동물분자유전육종사업단 연구교수, 김문석 정춘한우사업단 부회장 및 관계자들을 만나 기후위기 대응 축산 탄소 감축을 위한 저탄소 한우 산업화 및 수출 확대 방안을 모색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진> '정춘한우'는 세계 최초 유전체 정보와 이력정보 분석을 통해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암소를 선발하고, 저탄소 형질을 대물림시킨 송아지를 정밀 사양해 사육기간을 기존 32개월에서 25개월 미만으로 단축한 것이 특징이다. 또 정춘한우는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 평균보다 소고기 1kg당 16.6kg 이상의 탄소발자국을 줄인 저탄소 검증 한우다. 김춘진 사장은 "먹거리에서 지구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31%가 나온다"며 "저탄소 축산물 소비



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 하나뿐인 지구를 지키는 저탄소 식생활 확산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저탄소 한우 육성으로

수출을 확대하고 지속가능한 미래 한우산업 발전에 힘써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농어촌공사, '스마트팜' 청년 임차인 모집

### 전남·전북 등 10곳 4월3일까지

한국농어촌공사는 스마트팜 전문교육 등을 마친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 임차인을 오는 4월 3일까지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사업은 공공임대용 비축농지에 스마트팜(연동형 비닐온실)을 설치해 청년 농업인에 최장 20년간 장기 임대하는 사업으로, 초기 자본이 부족한 청년 농업인도 시설 영농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임대 대상 농지 소재지는 전남, 전북, 충북, 경북, 경남으로 총 10곳이다. 스마트팜은 온실형태로 내재해형 연동형 비닐온실, (내부시설) 환경제어시설, 양액배배시설, 관수시설 등을 포함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지원 대상은 농지소유 이력이 없는 만 18세 이상부터 만 39세 이하 청년 농업인으로 '스마트팜 혁신밸리 청년창업 보육센터 교육과정'을 이수했거나 경영 실습 임대농장 운영경력 2년 이상인 농민을 대상으로 한다. 선정 인원은 총 11명이다. 사업 및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정보는 농지은행 포털(www.fbo.or.kr)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농지 소재지의 관할 지사에서 접수가 가능하다. 권익현 농지은행처장은 "농업 인구 감소와 기후 변화 속에서 스마트팜은 미래 농업의 중요 대안"이라며 "이번 사업으로 신규 청년 농업인들의 유입 확대와 정착으로 한국형 스마트팜 경쟁력 확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지역 수산물 소비 활성화

### 해수부, 수산물 할인 지원

해양수산부는 다음 달부터 11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 사업을 벌인다고 26일 밝혔다. 직거래 장터 등 지역 수산물 할인행사를 하고 학교 급식에 지역 수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구매비용을 지원한다. 취약계층이나 임산부를 대상으로 지역 수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것도 포함된다. 수산물 물가 부담 완화와 수산물 소비 활성화가 주요 목적이다. 지역 특산물이나 가격 상승, 소비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산 수산물을 중심으로 지역별 여건에 적합한 품목을 선정할 예정이다. 행사 품목과 일정 등 세부 계획은 참여 지자체에 문의하면 된다. /연합뉴스

## 극심한 기후 변화 가뭄, 농촌용수개발로 극복

### 농식품부, 전남 3곳 등 8곳 선정 수리시설 조성 등 5150억 투입

정부가 기후변화로 인한 농촌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농촌용수개발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상습적인 물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농촌지역에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농촌용수개발사업 8개 신규 지구(전남 2곳 포함)와 전남 1곳에 포함된 기본조사 12개 지구를 선정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농촌용수개발사업은 가뭄상습지역에 저수지, 양수장, 우수로 등 수리시설을 설치하고, 농어촌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농업·생활·환경용수 등 다목적 용수를 확보해 공급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최근 기후변화로 가뭄이 빈번히 발생하고 가뭄의 강도도 점차 심화되고 있는 추세로 최근 1년간의 전국 평균 강수량은 1177mm로 평년(1332mm)보다 적었다. 특히 국내 최대 곡창지대인 광주·전남지역은 915mm로 평년(1390mm)의 66%에 불과하는 등 1973년 이후 최

저 3위의 강수량을 기록했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물수급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전남·충남 등 전국 8개 지구에 총 사업비 5150억원을 투입한다. 이들 지구에 수리시설을 새로 조성하거나 증설하고, 기존 수리시설과 연계해 지역 간 물 수급 불균형을 해소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사업을 완료하면 수리시설이 미흡하거나 지하수 관정 등에 의존하던 상습 가뭄 농경지 6769ha에 하천유지용수를 연간 20만t 꾸준히 공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올해 공사 중인 52개 지구에 농촌용수개발사업 예산 2822억원을 투입해 조기 완공하도록 지원하고 올해 말까지 7지구 2053ha를 준공해 내년부터 농업용수를 본격 공급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촌 물 부족지역에 신규 수자원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공급해 기후변화에도 농업인들이 가뭄 걱정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전략작물 직불금 신청 4월20일까지 연장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전략작물 직불금 등록 신청 기간을 오는 4월 20일까지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올해 처음 시행하는 '전략작물 직접 지불제도'가 제도를 농업인에게 잘 적정 생산 정책에 많은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신청 기간을 기존 3월 31일에서 4월 2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전략작물 직접지불제는 밀·콩과 같은 수입에 의존하는 작물의 국내 생산을 확대하고 구조적 과잉인 밭쌀용 벼 재배를 줄여 안정적인 쌀 수급불안을 해소하면서는 이용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올해 새

롭게 도입한 제도다. 농식품부는 또 올해 직불금 지급 대상 농가가 대폭 확대된 '기본형 공익 직접지불금'과 '전략작물 직접지불금' 등록 업무가 중첩됨에 따른 일선 읍·면 공무원의 업무 과중을 함께 고려했다고 밝혔다. 전한영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이번 직불금 등록기간 연장으로 많은 농업인이 전략작물직불금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정부는 직불제 외에도 가루쌀·콩·조식료 전문생산단지 육성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쌀 수급안정을 이루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탁**

# 튼튼한 금융의 힘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 광주문화신탁이 평생어부바 해드리겠습니다

자산규모  
1조5천억원

1993년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7%이상  
지역사회환원

**대표번호 1644-7990**  
본점(본부, 사업본부), 문흥지점, 양산지점, 운암지점, 동림지점, 매곡지점, 천당지점, 통광주지점, 각학지점